

정진숙 국민의당 사무처장 선임 배경 '관심'

당내 신임 · 책임감 · 추진력 때문... 2018년 지선 도지사 '물갈이' 위한 포석 해석도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지난 18일 신임 사무처장으로 정진숙(53) 전 도의원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웠다.

보통 도당 사무처장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첫 여성 도당 사무처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일단, 도내 정기는 정 신임처장이 당내 신임이 두텁고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정 사무처장은 도의원 시절 늘 적극적이었다.

임기 내내 지역현안과 해당 상임위 선봉에 섰었다.

1H분산배치 범도민 서울경기대회 결의문 낭독, 전주중합경기장 개발 중단 촉구, 남원 내기마을사태, 민관공동조사 위 즉각 구성 등 활약이 뚜렷했다.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도당 창당대

회 사회를 맡아 여성 당원들의 역할도 주도,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저돌적이고 강경한 이미지 때문에 비판도 받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유성엽 의원이 도내 일간지 기사관련 불만을 제기하자, '산후조리가 안된 탓'이라는 비꼬는 댓글을 달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북도당 핵심직책으로 정 신임 처장이 선임된 배경에 또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오는 2018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물갈이'를 위한 포석으로 정 사무처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소위, '저격수'로서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정 사무처장은 정치인과 여성으로서 드물게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지

역사회에서 신뢰도 높아 대중성을 자랑한다.

또 중견 정치인으로 차곡차곡 자신의 입지를 다져온 것도 인상적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구, 민주당 여성국장 출신이면서 지난 제9대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도정을 잘 알기 때문에 송하진 현, 지사에 대한 견제 효과를 무시 못할 것이라 설명이다.

도내 정치권의 예상대로 정 사무처장이 '저격수'로 나설 경우 국민의당 도지사 후보에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거론되는 정치인으로는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유성엽 의원(정읍, 고창)이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난 18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국하는 등 중앙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성엽 의원에게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정 사무처장은 대표적인 유성엽 의원계로 정치인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도당이 입맛에 맞는 인물을 사무처장으로 선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가 한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진다. 업무 전문화 차원에서 당직자 경험과 의정 경력이 있는 정 사무처장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향후 지방선거에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데 저격수의 역할이 크다. 그런 점에서 지역 정치와 도정을 잘 아는 정 사무처장이 송 지사 흔들기에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배 전 감사관에게 공로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지난 18일 전북도 감사관의 임기를 마친 김용배 전 감사관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이 공로패를 전달할 때는 재임 기간 감사제도 개선과 감사인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 제고와 감사결과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 감사성과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 사전컨설팅제'를 도입해 법령의 불명확한 유관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이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사태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송성환 위원장은 "김용배 감사관께서 근무하는 동안 감사시스템 개선으로 전북도가 공직윤리제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청렴도 평가 역시 상승하는 등 청렴전북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비록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앞으로도 전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배 전 감사관은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 1과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광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전주방문의 의미는?

행동 반경 넓어 대권행보로 해석 박 시장 측 확대해석 경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전주를 방문, 그의 향후 정치 진로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휴가 중인 가운데 전주를 방문해 대권 가도와 연결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이 대권행보로 보는 이유는 개인 일정으로 보기에는 행동 반경이 넓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권 주자들이 맨 얼굴로 민생 현장을 누비는 게 일종의 필수 코스처럼 인식되면서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이날 박 시장은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대원사, 전주 효자동 교회, 한옥마을 투어 등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존재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인품으로도 차기 대권주자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후후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측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방문 목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휴가 목적으로 방문했다.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잠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날 취재를 동행한 지역 언론들은 "20일 오전 송하진 지사와의 비공개 오찬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한옥마을 찾아 지난 19일 여름휴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가운데 여대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함구 문 의 회동 등 대권행보로 해석될 게 명약 이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순화규 전 상임고 관화환데 아니라고 부인하니 선뜻 받아들

이정현 '우병우 퇴진' 질문에 사흘째 '침묵'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사흘째 침묵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수석에 대한 퇴진 문제에 대해 "제가 그것에 대해 말하 지면 논평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약 진상규명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1초라도 기다릴 수 있겠나? 당연히 의법조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되죠"라고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우 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 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정진석 원내대표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 생각은 어떠냐'는 등 추가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대표는 이틀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우병우 수석의 퇴진을 청와대에 건의해야 한다는 요청에 침묵을 지켰고,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 수사의뢰한 직후에도 퇴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제10회 장수 한우랑

다이나믹한 무대 속으로 Go! Go!

사과랑축제

2016. 9. 2.(금) ~ 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이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p>9/2</p> <p>KBS전국노래자랑 13:00~15:30 (현철, 송대관, 김혜연, 박상철, 박진선)</p> <p>개막 축하공연 19:00~22:00 (EXID, 홍진영 등 13개팀)</p>	<p>9/3</p> <p>뮤지컬 '논개 꽃으로 피어나다' 19:00~20:00</p> <p>레드락 페스티벌 20:00~21:50 (장미여관, 노브레인)</p>	<p>9/4</p> <p>한우랑사과랑 가요제 13:00~15:00</p> <p>주현미 K-재즈 콘서트 19:40~21:30</p>
---	---	---

장수몰 MALL | NAVER | 장수몰 | 검색 | 검색하세요